

확신의 전지적 피부 시점

천호 차안박피부과 노기영 피부과전문의(대표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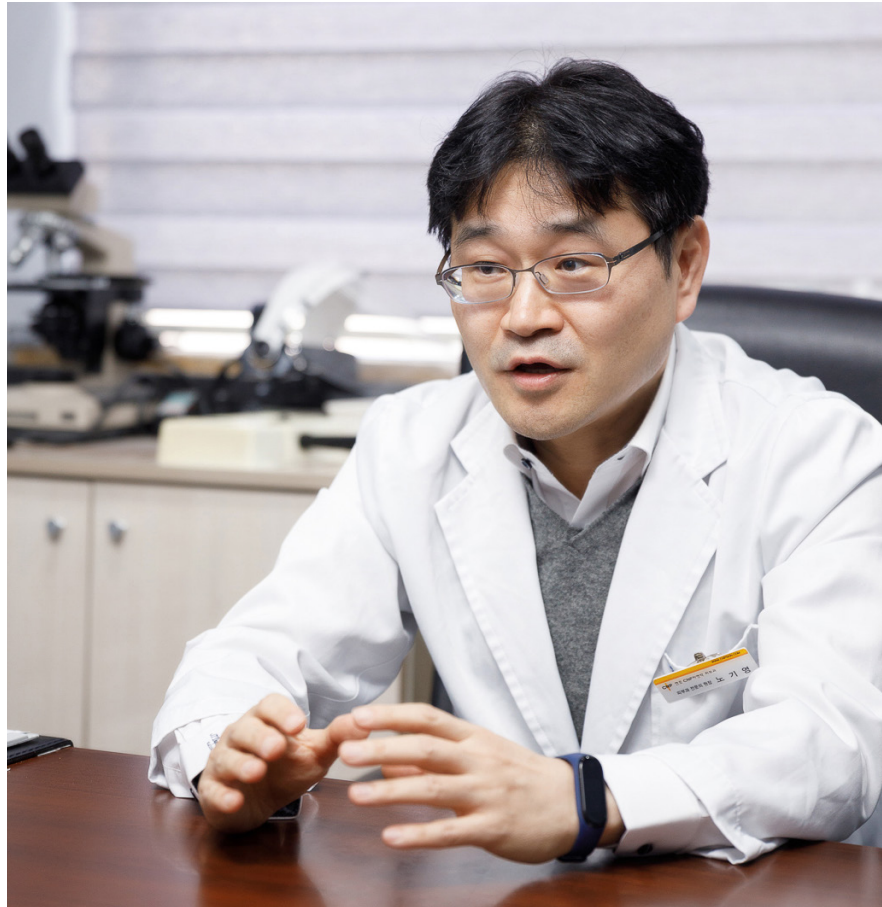
피부과 전문의. 피부주치의. 피부 전문가.

강산이 2번 바뀌는 세월 동안 진료 현장에서 피부과 전문의, 피부주치의 그리고 피부 전문가로 환자와 마주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의, 피부주치의, 전문가 등으로 변주하기는 했지만 차안박피부과라는 브랜드와 함께 그의 삶에서 가장 익숙하고도 중요한 수식어가 되었다.

피부과 전문의, 늘 해피엔딩

피부과 전문의로서 진료실에 들어서는 환자의 다양한 피부 고민과 병변 상태를 살피고 진단한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집중하면서 해결하기까지 여러 동선이 존재하지만 늘 개개인의 삶의 질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결론이 좋았다. 천호에서 개원을 했던 그 첫날의 마음이 지금도 있다. 환자 피부의 회복에 그의 섬세한 성향이 통하는 부분도 있었다. 또한 세월의 깊이만큼 시간은 지나 개원 초기 청소년기 여드름으로 방문했던 환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방문하고, 남자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원 초반에는 남자 환자의 비중도 높지 않았지만 간혹 털이 없어서 고민인 환자가 내원했다면 지금은 매끄러운 피부를 추구하는 제모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미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죠.” 건강한 피부는 미용의 개념을 넘어 미테크라는 영역으로 개인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분야가 되었다.



피부주치의, 이제는 숙명

초반 지역의 피부과 거점 병원으로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경험한 피부 질환을 실제로 마주하며 나날이 성장할 수 있었다.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피부과는 흔하고, 의료 정보도 다양해서 이제 환자들이 선택하여 병원을 찾는 시대가 왔지요. 다만 피부는 한 번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피부를 가장 잘 아는 피부주치의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개인차가 있는 피부 고민을 해소하는 데는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AI 대체 불가 분야에 피부과가 포함되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게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 맞춤 치료의 섬세함과 정교함은 AI의 딥러닝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신만의 피부주치의는 꼭 필요합니다.

전천후 피부 전문가, 미래의 우리 피부는

이미 경험한 팬더믹으로 마스크 일상화가 가져온 피부 문제는 향후 그 이상의 빌런 출현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피부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침 중 기본으로 강조하는 바는 피부 문제 발생시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났다면 기본 처치는 하되 그것을 일부러 가리거나 씻어 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무심결에 메이크업으로 가리고, 그것을 클렌징하는 과정에서 자극을 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피부 입장에서 상처인데 말이죠. 보살피고, 상처받은 피부를 아끼고 피부 전문가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유불급. 피부과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피부 개선 솔루션들이

많아졌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대체로 피부를 위한다는 행동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피엔딩, 숙명 그리고 미래의 우리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전지적 피부 시점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점은 현재진행형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주하되 그 중심엔 환자들의 피부 안녕이 그들의 삶에 행복을 주리라는 확신이 묻어난다. 피부 입장에서 생각하기! 계속 맴도는 하모니다.

